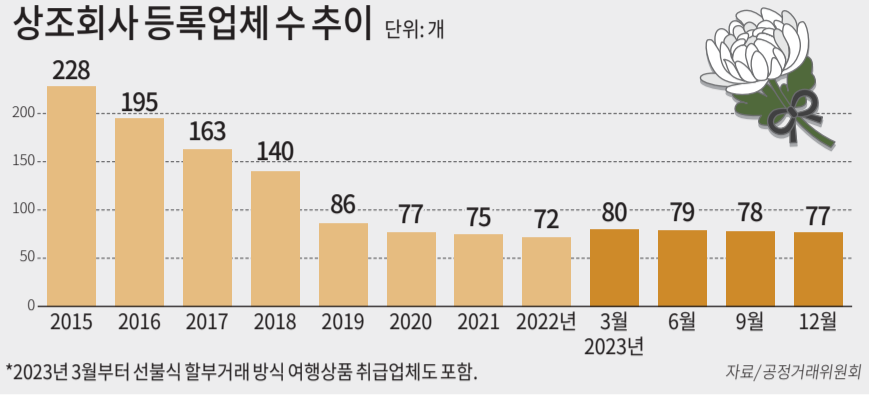


상조회사 추가금 피해 주의보... 가입유도 전화오면 의심해야

공정위, 회사 폐업엔 보상 어려워
'내상조 찾아줘'서 적법한지 확인
자산·부채·자본금 등도 알수있어
피해보상 계약 체결 여부 살펴야

이진성(가명)씨는 최근 H그룹(대기업) 계열사라고 소개하며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H상조회사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다. 이씨는 기존에 가입한 상조회사가 최근 문을 닫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터였다. 상담원은 그에게 폐업한 상조회사에 보던 액수를 뺀 나머지를 일시불로 납입하면 자신의 상조상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1~4년 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하면 폐업한 회사에 보던 돈과 추가로 낸 액수까지 포함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했다.

박성진(가명)씨 역시 자신이 가입한 T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S상조회사가 T사의 영업권을 양수받았으며 박씨에게 연락해 회원자격을 유지하기위해선 추가 납입금을 내라고 제안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업체에 따르면 이씨의 사례와 같이 상조회사가 차액을 일시납으로 요구하는 것은 후불제 상조회사로, 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 자신이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또 영업양수 등 적법한 지위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 추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상조상품에 가입하기에 앞서 공

정위가 구축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 이름으로 검색해 적법한 곳인지 확인하는 게 1순위다. 특히 상조회사에서 가입을 유도하기위해 먼저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해봐야한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사명을 검색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및 등록일, 정상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금, 지급여력 비율 등도 알 수 있다. 회계연도가 끝난 감사보고서도 열람할 수 있

다. 선수금 규모와 어떤 금융기관과 선수금 보전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자신이 낸 납입금 조회도 가능하다.

공정위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고객이 내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시중은행에 예치해 놓거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 고객 선수금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국내 상조가입 인원은 833만명, 누적 선수금 규모는 8조3900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선 가입 인원이 1000만명, 선수금 규모는 10조원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원라이프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살펴봐야한다"면서 "재무적으로 안전한 회사인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는데 이번 지급여력비율과 부채비율을 살펴봐야한다."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

상이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부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낮을 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부도나 폐업 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위해 피해보상증서,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상조회사를 통해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회사)는 4분기에 ㈜대노라이프가 등록 취소되면서 77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오는 3월22일부터는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시행돼 소비자들은 상조회사들로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백, ESG경영 관심도 업계 1위 차지

지난해 12개 채널 정보량 분석결과
2위 롯데 이어 신세계·갤러리아 順

현대백화점이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ESG경영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데이터엔리서치는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지식인, 기업·단체, 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6개 주요 백화점에 대해 ESG경영 정보량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백화점은 정보량 순으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NC백화점 등이다. 조사 키워드는 '백화점 이름 + ESG' 등이며, 키워드 사이에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과 달라질 수도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달 초 데이터엔리서

치가 분석한 백화점 업계 관심도에서도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ESG경영 정보량 조사에서도 선두를 차지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분석 기간 총 1984건의 ESG경영 정보량을 기록하며 백화점 업계에서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월 현대백화점은 고려대학교에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그린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고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고려대와 축제 기간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분리배출 실천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클린존'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현대백화점그룹이 광주, 대전에 시민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과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융합된 미래형 공공시설물을 마련하는 '스마트 웰터 기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사회안전'을 지난 2023년 ESG경영 전략의 새로운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바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2월 ESG경영 실천을 위해 식품관에서 판매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손질해주는 '프레시 테이블' 서비스에서 플라스틱 일회용기 사용을 중단했다. 현대백화점은 이러한 일회용기 사용 중단을 통해 연간 6.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으며 해당 내용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조명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년간 총 1129건의 ESG경영 정보량을 나타내며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롯데백화점은 지구의 날을 맞아 뷰티 ESG경영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롯데백화점은 '디포션', '리솔츠', '그랜테비' 등 3개 비건 뷰티 브랜드를 소개하며 ESG경영을 실천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 5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동철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한전에 中소요금 신설 등 건의

최저가 낙찰제 개선도 요청

중소기업중앙회가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신설 등 중장기 요금개편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중소기업 현안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이사장,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품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한전의 상생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중소기업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주요 당면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한전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적극 활용해 기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2022년부터 약 40% 급등한 전기요금과 관련해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중장기 요금개편방안 마련, 중소기업 공동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오픈 10일' 스타필드 수원, 84만명 방문

MZ타겟 콘텐츠 큰 호응

신세계는 지난 달 26일 그랜드 오픈한 '스타필드 수원' 방문객 수가 열흘 새 84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스타필드 수원'은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수원 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기존 가족 중심의 1세대 스타필드에서 나아가 국내 소비트렌드를 이끄는 MZ세대에 특화된 '2세대 스타필드' 첫 매장이다.

압도적 규모의 '별마당 도서관'과 현대·성수에서만 볼 수 있던 MZ세대 타겟의 패션·식음료·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츠들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개점 시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로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4층에서 7층까지 높게 트인 별마당 도서관에서는 매주 주말 문화 공연을 진행해 발코니마다 관람객들이 봄비면서 지역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는 중이다.

지역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스타필드 수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뛰어나다. 세수 확보 및 지역민 3000명 채용 등은 물론, 스타필드 수원 방문객이 골목 곳곳으로 유입되면서 화서역 인근 상권도 활성화되고 있다.



스타필드 수원 외경. /신세계프라퍼티

실제, 스타필드 수원 반경 150m 내에 있는 화서역 먹거리촌의 경우 점포 총 50여곳의 매출이 스타필드 개장 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4배 상승했다.

또한 먹거리촌 방문객들이 협소한 점포 주차장이나 골목에 주차하는 대신 스타필드 수원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인근 주차난과 통행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빛나 기자

기보, 기술거래 사업화 지원 참여사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2024년 기술거래사업화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7일 기보에 따르면 통합지원사업은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해 중소기업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집중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예정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기보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 및 최종 심의를 통해 40여개 기업을 선정해 이 전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사업에 뽑힌 중소기업은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설계 컨설팅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신뢰성 평가 비용 등 상용화 제반 비용 ▲기보의 IP인수보증에 대한 이차보전 금융혜택 등을 통해 최대 1억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